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마태 5,6)

의로움은 무엇인가요?

공용어에서 «의로움»
라는 말은 인권 존중,
평등의 필요성, 공평한
인적 자원 배분, 법
존중을 촉구하는
기관들을 상기시켜요.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그런
측면을 포함 하기도 하지만,
관계의 조화, 일치, 그리고 평화를
의미해요.

성서적 의미의 의로움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로, 사랑 안에서
하나된 한 가족으로 하느님께서
생각하시고 원하신 것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열망과 추구는
인간의 양심에 늘 새겨져
있으며, 하느님께서 직접
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역사를 통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계획의 충만한
실현은 아직 멀어요.
전쟁, 테러 및 민족 분쟁은
여전히 불의, 사회 및
경제적 불평등의 표시예요.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06

Parola di Vita

centro.rpu@focolare.org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nità
movimento dei
focolari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마태 5,6)

참된 **의로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랑 없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재산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남녀의
존엄성의 존중도
없을 것이에요.



재산은 혼자 걸어 나가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서 재산이
움직이게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서는 법의 실행을
능가하는 의로움을
실천하도록, **사랑의 표현인
의로움**을 실천하도록
청하세요.



예수님께서 청하시는 의로움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인
것처럼 바라보고 대하면서 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성부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똑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와 함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재산의 나눔에서 **서로
서로 선물이 되어 줌으로서**,
모두가 단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면서 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형제
적이며 공정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현실이 될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살러 오실 것이고**
그분의 현존으로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이에요.